

휴스(HUSS) 신규 선정 결과 발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에 3년간 90억 원 지원

2024년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분야 신규 연합체 3개 선정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학사제도 개편 등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대학) 선정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3



개 분야 연합체 선정에 의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3개 분야 총 19개 연합체가 신청했다. 이후 사업 계획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3개 연합체가 신규로 선정됐다. 선정결과 ▲

지역 △전주대학교(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사회구조 △서강대학교(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원광대학교) ▲글로벌·공생 △광운대학교(국민대학교, 선문대학교,

영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전공에 상관 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폭 넓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신규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이주호 부총리,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 면담

지난 3일, 한-에티오피아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르한우 네가 봉거(Berhanu Nega Bongger)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학생 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최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처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양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농어촌 작은 학교만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우수사례 확산 기대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개최된 동 공모전을 통해 ‘답답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우수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등을 통해 우수한 농어촌 학교들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24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에서는 2024년 7월 19일까지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전문 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온라인 홍보,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전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유아 영어학원의 위법적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엄단 하라

유아교육법에 명칭 사용금지 명시...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할 수 있어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이 여전히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공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지난 3일 교육부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동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 영어학원 등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2항

은 ‘관할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35조(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이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 명칭을 사용해 불

법으로 적발, 행정조치된 바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서도 사설학원의 ‘학교’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금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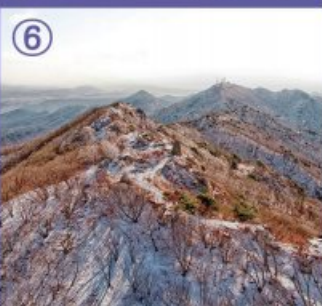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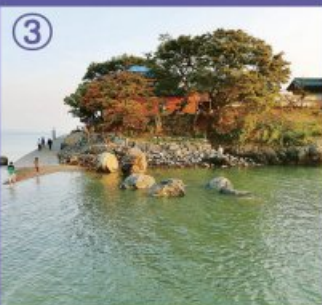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제15회 2층1호 전국 백일장 공모전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전국종합
- ▶ 6면 전국교육
- ▶ 7면 전국교육
- ▶ 8면 전국종합
- ▶ 9면 문화예술사회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제76회 충남도민체육대회

- ▶ 1면
- ▶ 2면
- ▶ 3면
- ▶ 4면
- ▶ 5면
- ▶ 6면
- ▶ 7면
- ▶ 8면
- ▶ 9면
- ▶ 10면
- ▶ 11면
- ▶ 12면

교육타임즈

- ① 해미읍성
- ②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 ③ 간월암
- ④ 개심사
- ⑤ 팔봉산
- ⑥ 가야산
- ⑦ 황금산
- ⑧ 서산한우목장
- ⑨ 삼길포항



서산으로
함께
떠나요

Welcome to SEOSAN!

서산시
SEOSAN CITY